

## 대학생의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애착유형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유 상 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임상심리실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고, 검증된 모형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와 안정/불안정애착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6개의 대학교에서 총 59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설정한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부분 매개하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둘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조절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각된 스트레스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로의 경로계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사고로의 경로계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은 더 증가하였으며, 자살사고도 더 많이 증가하였다. 셋째,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집단으로 나누어 조절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안정/불안정 애착유형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사고로의 경로계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불안정애착 집단은 안정애착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유의미하게 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 자살사고,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애착유형

\* 본 논문은 유상미의 석사논문에 기초하였습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E-mail : sleel1@ewha.ac.kr

자살은 한 개인에게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 전체를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이면서 심각한 파급효과를 지닌 사회적 문제로서,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즉각적 주의를 요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2005년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였으며, 20대에서는 사망원인 1위로 2위인 교통사고보다 40%나 더 많았다(통계청, 2007).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살 현상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4위이며, 최근 20년 간 자살사망률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1위이다(OECD, 2006). 자살 현상의 이러한 심각성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자살현상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지 못하며, 예방과 개입으로의 연결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자살자의 약 90% 정도가 사망 당시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연구결과(Shaffer, Pfeffer, Bernet, Arnold, Beitchman, Benson et al., 2001)를 포함하여, 자살과 정신장애의 관련성은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울증은 자살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지표인 것처럼 다루어져 왔는데, 문제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모든 청소년들이 우울하지도 않으며, 우울한 모든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Ayyash-Abdo, 2002). 우울증은 자살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으로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정신장애라는 병리적인 관점만으로는 자살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O'Connor, 2003).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은 자살을 유기체로서의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선택하는 하나의 반응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생의학적인 질병모델이 지닌 한계를

극복한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은 개인 내적인 취약성 요인들과 외부 환경적 스트레스 유발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자살현상을 이해한다. 스트레스와 자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중 일부는 스트레스를 일으킬만한 생활사건을 경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문경숙, 2006; 박경, 2004b; 홍영수, 2005), 개인의 적응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Williams(1997)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한 외침(“cry of pain”)’ 모델에서 스트레스 유발인자(stressor)의 존재가 자살 위험의 필수적 조건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실패나 거절을 암시하는 내·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각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Bolton, Gooding, Kapur, Barrowclough, & Tarrier, 2007). 이러한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내적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취약성 요인으로 완벽주의, 문제해결능력, 자존감 등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박경, 2004b; 홍영수, 2005; Dean, Range & William, 1996).

완벽주의는 스트레스와 우울이나 자살 등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취약성 요인 중 하나로서, 완벽주의는 심리적 부적응과 주로 관련된 단일 차원의 개념에서 적응, 부적응의 기능을 모두 가진 다차원적 개념으로 발달해 왔다. Frost와 Marten(1990)은 완벽주의를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라는 6개의 하위차원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개발하였다. 한편,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적인 행동의 대상이 누구인가 또는 완벽주의적인 행동이 누구에게 귀인 되는가에 따

라 완벽주의를 3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즉,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타인에게 부과하여 그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그리고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 자신에게 비현실적 기준과 기대가 부여되며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로써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구성된다.

이러한 완벽주의의 하위차원들은 평가염려 완벽주의(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와 개인 기준 완벽주의(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의 두 차원으로 재분류되기도 하였는데, Frost와 Marten의 MPS 중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그리고 Hewitt과 Flett의 MPS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평가염려 완벽주의 또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Hewitt과 Flett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측면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며,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더라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준이 낮다면 여전히 적응적일 수 있다(Klibert, Langhinrichsen-Rohlinh, & Saito, 200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대인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성취관련 스트레스와 각각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예언하였으며(Hewitt & Flett, 1993), 자살사고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Dean, Range & William, 1996; Hewitt Newton, Flett, & Callender., 1997). Frost와 Marten의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 역시 자살사고와 관련이 높았다(Adkins & Parker, 1996; Hamilton & Schweitzer, 2000). 완벽주의 성향이 높았던 대학생들만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 정적 상관

을 보였던 연구결과(Hewitt & Dyck, 1986)나 회귀분석을 통해 완벽주의가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moderating variable)으로 작용함을 밝힌 연구(박경, 2003; Cheng, 2001)에서처럼,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서 완벽주의는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낮게 할 수 있는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한다(Dean et al,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는 입장 대신에, 완벽주의가 스트레스와 자살사이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근거하여, 먼저 이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완벽주의의 개념은 자살과 관련성이 높은 부적응적 또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로만 한정하였다.

Leenaars(1996)는 사람들이 단순히 스트레스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고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 자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지적 축소(cognitive constriction)가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한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고통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할 때 개인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찾지 못하고 도피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는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D'Zurilla & Nezu, 1990). Williams(1997)는 패배 또는 거부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스트레스적인 상황들로부터 벗어나길 원하고 그 가능성을 판단하지만, 도피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살사고가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D'Zurilla, Chang, Nottingham, 그리고 Faccini(1998)는 대학생, 정신과 환자, 자살 시도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결핍이 절망감, 우울, 자살사고와 관련됨을 보여주었

다. 자살하기 쉬운 사람은 문제해결을 가능한 미루고,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서두르고 충동적이며 부주의하고 편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D'Zurilla et al., 1998). 반복적인 자살시도는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결핍된 상태에서 자살이 고통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한다(Diserud, Roysamb, Braverman, Dalgard, & Ekeberg, 2003; Jeglic, Sharp, Chapman, Brown, & Beck, 2005).

한편, Chang(1998)은 완벽주의(특히, Frost와 Marten의 MPS 중,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비난, 조직화)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예측요인으로서 작용하며, 완벽주의에 더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도 자살위험을 설명함을 보여주었다. Chang(2002)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낮은 경우, 완벽주의 경향이 강하다면 더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사고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다고 지각한 사람의 경우, 완벽주의는 자살사고의 더 유의미한 결정요소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경(2004a)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와 문제해결능력 각각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주의와 문제해결능력의 상호작용을 살펴 본 연구는 없다.

자살은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기능적 행위로 간주된다(Leenaars, 1996).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스트레스적인 사건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 내적인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인 외적인 자원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위기를 경감시킬만한 구원요인으로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Williams, 1997). 심미영과 김교현(2005)은 청소년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

록,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는 지각된 사회적 지원이 자살사고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자살 위험이 높을 때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 외적인 자원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애착이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광은(2004)의 연구에서 안정형 애착유형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불안정한 애착유형의 사람들보다 더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거나 문제중심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ogel과 Wester(2003)의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애착유형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을 통해 형성되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system)은 대인간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계의 원형을 제공하며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청소년 후기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De Jong (1992)은 심각한 자살사고나 자살시도를 가진 집단은 자살위험이 없는 우울집단, 그리고 정상집단과 비교하여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가장 낮고, 애착 안정성 또한 가장 낮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의 정서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지지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대로, 안정애착유형을 지닌 경우,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고 타인을 호의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주변에 지지를 추구하여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할 수 있다. 이는 자살사고를 완충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시에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자원이 된다(Mikulincer et al., 2003). 우

리나라에서 문경숙(2006)은 학업 스트레스와 청소년 자살 충동간의 관계에서 부모 애착의 부분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부모와의 애착은 완벽주의 성향의 관계적 성질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아동이 부모의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를 지각하고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부모의 불인정, 비일관적인 승인을 주로 경험하고, 부모의 양육방식이 통제적, 비판적, 요구적일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생겨난다. 즉, 아동은 부모에게 인정받거나 부모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욕구는 무시하고 수행을 매우 중요시하게 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걱정하거나 행위를 의심하게 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발달시키게 된다(Rice, Lopez, & Vergara, 2005; Rice & Mirzadeh, 2000).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자신에게 가용한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Dunkley et al., 2000). 이러한 특징들은 불안정 애착의 부모-자녀 관계와도 연결된다.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Rice와 Lopez의 연구(2004)에서 불안정 애착유형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Rice와 Lopez는 수행에 대한 의심이 극심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애착안정성이 높을 경우에 수행에 대한 의심이 낮은 학생들과 유사한 정도의 자존감을 보고하지만, 애착이 불안정할 경우에 자존감은 훨씬 더 떨어짐을 보고하였다. 자존감이 많은 심리적 문제들과 관련된 변인임을 고려할 때,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애착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Hewitt과 Flet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를 사용하여 완벽주의 성향과 애착유형의 관계를

본 연구들(유미숙, 하은혜, 김혜진, 2004; 윤은정, 2001)이 있어왔지만, 심리적 부적응의 측면에서 완벽주의 성향과 애착의 상호작용을 본 연구들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근거하여,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여러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대표적 취약성 요인으로 밝혀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경로를 매개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자살과 관련된 연구의 주요한 목표는 자살위험이 높은 집단의 특징을 찾아내어 이를 자살예방에 응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자살사고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살사고와 관련된 위험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수준에 따라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구조모형에서 이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완벽주의 성향과 애착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모형에서 안정/불안정 애착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오던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자살의 예방과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논의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4)과 경기도(2) 지역 6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612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성향을 보인 15명을 제외하여 총 597명(남자 253명, 여자 34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2.9세( $SD=2.46$ ; 범위=19-33세)로, 19-27세까지의 연령이 전체의 96.8%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 중 일부는 자살위험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마친 대학생들에게 자살의 위험과 관련된 경고 단서와, 자살충동을 느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기관들의 목록을 제공하였다.

### 측정도구

#### 자살사고 척도

임상면접을 통해 임상가가 평정하도록 한 Beck, Kovacs와 Weissman(1979)의 자살사고 척도(SSI: Scale for Suicide Ideation)를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와 김중술(1990)이 자기 보고식 척도로 변형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3점 척도(0-2점)로 총 19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는 Cohen, Kamarck, 및 Mermelstein (1983)이 개발한 척도를 Cohen과 Williamson(1988; 이정은, 2005에서 재인용)이 요인분석을 통해 단축형으로 수정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

는 상황들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1-5점)로, 4, 5, 7, 8번 문항은 역으로 채점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정은(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

Dunkley 등(2000)의 연구 결과에 따라,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 중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 Hewitt과 Flett(1991a)의 MPS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된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박경, 2004a; Cheng, 2001). 실수에 대한 염려(9문항), 수행에 대한 의심(4문항) 하위척도는 현진원(1992)이 번안한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에서 선별하였다. 5점 척도(1-5점)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실수에 대한 염려가 .83, 수행에 대한 의심이 .65이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9문항) 하위척도는 한기연(1993)이 번안한 Hewitt과 Flett(1991a)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홍혜영(1995)이 요인분석 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7점 척도(1-7점)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척도

D'Zurilla와 Nezu(1990)가 개발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척도를 Maydeu-Olivares와 D'Zurilla(1996)가 개정한 것(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SPSI-R)으로, 최이순(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PSI-R은 긍정적 문제지향(Positive Problem

Orientation; PPO), 부정적인 문제지향(Negative Problem Orientation; NPO), 합리적인 문제해결(Rational Problem Solving; RPS), 충동/부주의 스타일(Impulsive/ Careless Style; ICS), 회피스타일(Avoidance Style; AS)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2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1-5점)로 평정된다. 사회적 문제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전체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사회적 문제해결지수} = \text{PPO}/5 + \text{RPS}/20 + (40-\text{NPO})/10 + (40-\text{ICS})/10 + (28-\text{AS})/7$$

사회적 문제해결지수의 가능한 범위는 -1에서 19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좋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나타났다.

#### 애착 척도

국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azan과 Shaver(1987)의 3유형 모델과 Bartholomew와 Horowitz의 4유형 모델을 비교한 연구(장휘숙, 1997)에서 4유형 모델이 성인애착 유형을 더 민감하게 분류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작한 4범주 애착 척도(Relationship Questionnaire: R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현재의 애착 양식을 측정하는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김동직과 한성열(1997)이 변환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긍정/부정)의 자기모델과 2개(긍정/부정)의 타인 모델을 기초로, 안정형,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의 4가지 애착 양식을 산출한다. 먼저 각각의 애착 양식이 기술된 단문이 자신과 일치

하는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표시한 다음, 4가지 애착 양식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되는 애착유형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관분석을 위해서는 7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안정/불안정애착 집단을 나누어 구조방정식에서 조절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종 선택한 애착유형에 근거하였다.

#### 자료 분석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문제해결능력과 애착유형 각각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타 통계검정은 SPSS 12.0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주요변인들의 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측정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살사고는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불안정애착유형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안정애착유형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살사고와 관련된 요인들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 $r=.64, p<.01$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 중에서는 두려움형이 자살사고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 $r=.46, p<.01$ )을 보였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단순상관관계 결과

|      | 자살사고   | 스트레스   | CM     | DA     | SPP    | SPS    | 안정형    | 거부형   | 의존형   | 두려움형 |
|------|--------|--------|--------|--------|--------|--------|--------|-------|-------|------|
| 자살사고 | 1      |        |        |        |        |        |        |       |       |      |
| 스트레스 | .64**  | 1      |        |        |        |        |        |       |       |      |
| CM   | .51**  | .54**  | 1      |        |        |        |        |       |       |      |
| DA   | .42**  | .47**  | .61**  | 1      |        |        |        |       |       |      |
| SPP  | .46**  | .44**  | .54**  | .53**  | 1      |        |        |       |       |      |
| SPS  | -.52** | -.58** | -.45** | -.38** | -.33** | 1      |        |       |       |      |
| 안정형  | -.35** | -.37** | -.30** | -.31** | -.21** | .33**  | 1      |       |       |      |
| 거부형  | .23**  | .14**  | .18**  | .14**  | .14**  | -.09*  | -.14** | 1     |       |      |
| 의존형  | .27**  | .28**  | .26**  | .30**  | .24**  | -.22** | -.27** | -.06  | 1     |      |
| 두려움형 | .46**  | .39**  | .36**  | .37**  | .30**  | -.30** | -.42** | .20** | .41** | 1    |

주. CM=Concern over Mistake, DA=Doubt about Action, SPP=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PS=Social Problem Solving

\* $p < .05$ , \*\* $p < .01$ , N=597

####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구조적 관계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자살사고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연구모형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관계를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부분매개하는 모형이며,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관계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완전매개하는 모

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을 때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부분매개 모형은 완전매개모형보다 적합도 지수들에서 모두 더 나은 적합도를 보였다( $\chi^2(df=4, N=597)=10.056$ , TLI=.987, CFI=.995, RMSEA=.050}. CFI나 TL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괜찮은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홍세희, 2001).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와 각 계수의 추정치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

표 2.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적합도 비교

|        | $\chi^2$ | df | $\Delta\chi^2$ | $\Delta df$ | TLI  | CFI  | RMSEA |
|--------|----------|----|----------------|-------------|------|------|-------|
| 부분매개모형 | 10.056   | 4  | -              | -           | .987 | .995 | .050  |
| 완전매개모형 | 83.368   | 5  | 73.312         | 1           | .864 | .932 | .1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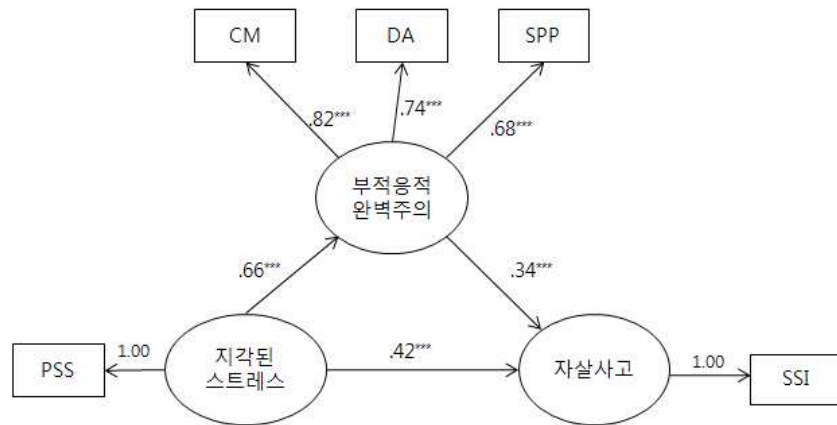


그림 2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구조모형

주. CM=Concern over Mistake, DA=Doubt about Action, SPP=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SS=Perceived Stress Scale, SSI=Scale for Suicide Ideation, 오차항은 생략되었음.

\*\*\*  $p < .001$

계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부분매개하는 모형은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살사고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 모형검증

앞에서 채택된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부분매개하는 모형을 사용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탐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문제해결 지수를 평균을 기준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집단의 평균점수는 12.26점 ( $SD=1.60$ ), 7.98점 ( $SD=1.53$ )이고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와 각 계수의 추정치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인 Free모형과 완전 제약 모형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측정구조가 동일한지 검증해 본 결과 측정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기각되었다( $\Delta\chi^2(df=3)=22.648, p=.005$ ). 이에 따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로계수를 찾기 위해, Free모형과 각 경로에 대한 제약모형들에 대해,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고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각된 스트레스와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경로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고·저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Delta\chi^2(df=1)=3.968, p=.05$ ; TLI=.964, CFI=.984, RMSEA=.052). 또한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에서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고·저에 따른 조절효과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Delta\chi^2(df=1)=4.253, p=.05$ ; TLI=.963, CFI=.984, RMSEA=.053). 그러나  $\chi^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해 볼 때 지각된 스트레스에서 자살사고의 경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고·저 집단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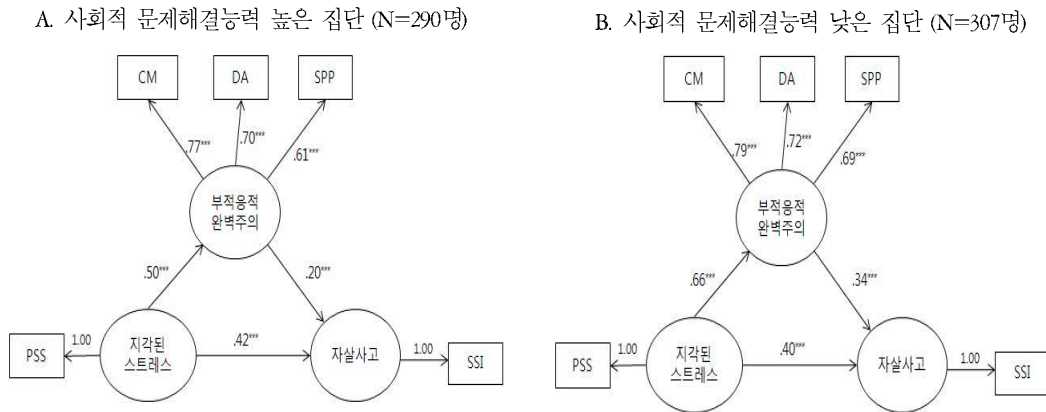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고·저 집단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

주. CM=Concern over Mistake, DA=Doubt about Action, SPP=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SS=Perceived Stress Scale, SSI=Scale for Suicide Ideation, 오차항은 생략되었음.

\*\*\* p < .001

른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안정/불안정 애착유형의 조절효과 모형검증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부

적응적 완벽주의가 부분 매개하는 모형에서 안정/불안정에착유형의 조절효과를 탐색해보았다. 안정에착유형 집단에는 안정형이 포함되고 불안정에착유형 집단에는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이 포함된다. 연구모형의 구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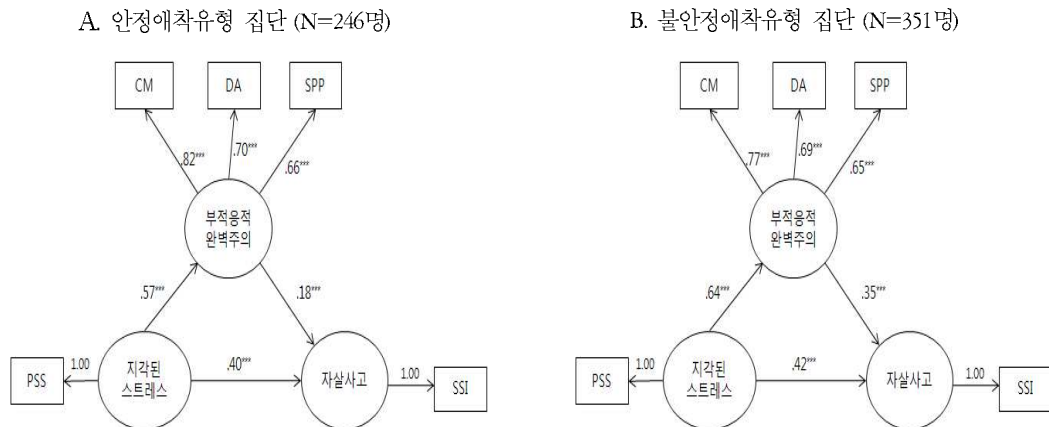


그림 4. 안정/불안정에착유형 집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

주. CM=Concern over Mistake, DA=Doubt about Action, SPP=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SS=Perceived Stress Scale, SSI=Scale for Suicide Ideation, 오차항은 생략되었음.

\*\*\* p < .001

관계와 각 계수의 추정치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인 Free모형과 완전 제약 모형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안정/불안정 애착유형 집단의 측정구조가 동일한지 검증해 본 결과 측정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기각되었다( $\Delta\chi^2(df=3)=37.76, p=.005$ ). 이에 따라 안정 애착 집단과 불안정애착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로계수를 찾기 위해 Free모형과 각 경로에 대한 제약모형들에 대해,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고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경로에서 안정/불안정 애착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Delta\chi^2(df=1)=8.858, p=.05$ ; TLI=.964, CFI=.984, RMSEA=.054).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경로와 지각된 스트레스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경로는 안정/불안정애착유형 집단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온 관련 변인들의 통합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자살 예방 및 개입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고, 검증된 모형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와 안정/불안정 애착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먼저 자살사고와 다른 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자살사고는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불안정애착유형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안정애착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지각된 스트레스

는 변인들 중에서 자살사고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자살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갈망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보는 것과 연관된다(O'Connor, 2003). 기존의 국내 연구들에서는 자살사고와 애착유형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는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착유형 중에서 두려움형이 자살사고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려움형은 자기, 타인개념 모두 부정적이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관련이 높다(김상선, 신민섭, 이훈진, 2007). 경계선성격장애의 중요한 임상적 특징 중 하나는 반복적인 자살위험 및 자살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 있어서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살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자살사고 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Chang과 Rand(2000)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완벽주의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자살사고를 포함한 심리적 부적응을 설명해준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들(Adkins & Parker, 1996; Dean et al., 1996; Hamilton & Schweitzer, 2000; Hewitt et al., 199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이 심리적 고통에 취약하고 자살의 위험이 더 높은 이유는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이 부족하여 우울해지기 쉬우며, 자신을 개방하

여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기 은폐성향이 더 높은 것과 연관될 수 있으며(Flett, Davis & Hewitt, 2003; Kawamural & Frost, 2004),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구조적 관계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고·저 집단에 따라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의 매개역할에 대한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이 더 증가하였으며,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살사고는 더 많이 증가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사람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매개하는 경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완충해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Chang, 2002)를 지지한다. 자살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접근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리교육적 요소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각된 스트레스에서 자살사고의 직접 경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자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접근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매우 오랜 기간 부적응적인 문제해결전략들을 사용해 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문제해결양식이 어떤 식으로든 기능적(functional)이며, 따라서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려는 접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치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Sheehy와 O'Connor (2002)의 지적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향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와 상호작용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에 예방과 개입의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구조적 관계가 안정/불안정애착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불안정애착유형 집단은 안정애착 집단과 비교했을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유의미하게 더 증가하였다. 안정애착일 경우, 부적응적 완벽주의 경향이 높더라도 자살사고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Bostik과 Everall(2007)은 자살위험을 극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수용적이고, 지지적이며, 친밀한 관계 경험을 통한 안정애착으로의 변화가 자살의 위험에 대한 보호요인이었음을 밝혔다. 안정애착유형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호의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주변에 지지를 추구하여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Mikulincer et al., 2003).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안정/불안정 애착유형의 조절효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경로에서만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으며,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경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안정애착의 보호적 효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경감시킴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자살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안정애착을 형성,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애착유형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면, 대신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구성요소들에 예방과 개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자살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신뢰할만한 지지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애착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뿐 아니라, 이러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개인기준 완벽주의(Dunkley et al., 2000) 또는 능동적 완벽주의 성향들을 증가시키는 방법들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거치지 않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직접 경로 또한 유의미하였으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나 애착의 조절효과가 이 경로에는 작용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 결과들로부터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완벽주의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 세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에만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만 설명가능하다. 둘째, 구조방정식을 이용할 때 자살사고와 지각된 스트레스는 단일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오차를 고려하지 못했다. 각 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만을 산출하였고, 항목들에 기초하여 parceling을 할 경우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라는 구성개념을 더 불분명하게 만들 수도 있다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의 원리에 더욱 충실하게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측정변인이 여러 개인 잠재변인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측정도구 중 애착척도는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로 신뢰도 계수를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여러 문항으로 이루어져 애착유형을 나눌 수 있는 측정도구와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애착유형 별로 상관을 통해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는 밝혔지만 구조모형을 다룰 때에는 표본 크기의 문제로 인해 안정/불안정애착유형으로만 집단을 나누었으므로 각 애착유형 별로 조절효과를 검증하지는 못했다. 애착유형별로 자살사고와의 상관에서 차이가 있었으므로 표본의 크기를 대규모로 하여 애착유형별 조절효과를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 검증 시,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양적 변인으로 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모든 측정변인들이 자기보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특히 자살사고의 수준은 자살을 금기시하는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축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살시도 집단, 임상집단과 같은 고위험군 집단이나 20대가 아닌 연령 집단에 결과를 직접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발달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초·중·고 학교장 면에서도 자살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시에 적절히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참고문헌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53-69.
- 김동직, 한성열 (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91-109.
- 김상선, 신민섭, 이훈진 (2007). 경계선 성격장애에 성향자의 자기 및 타인 표상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 703-715.
-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이동학회지**, 27, 143-157.
- 박경 (2003).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와 완벽주의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16, 57-69.
- 박경 (2004a).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문제해결과 완벽주의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265-283.
- 박경 (2004b). 청소년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자존감, 무망감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2, 96-106.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1-19.
- 심미영, 김교현 (2005). 한국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과 발달시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 313-325.
- 유미숙, 하은혜, 김혜진 (2004). 완벽주의 성향의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기능적 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유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 425-444.
- 윤은정 (2001). 애착과 성취동기가 완벽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2005). 자기복잡성과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7). 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 123-138.
- 최이순 (2002). 사회적 문제 해결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413-428.
- 통계청 (2007). 사망원인 통계 연보.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영수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의 완충효과. **한국이동복지학**, 20, 7-33.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

- 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3월 워크샵 자료집.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kins, K. K., & Parker, W. (1996). Perfectionism and suicidal preoccu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64, 529-543.
- Ayyash-Abdo, H. (2002). Adolescent suicide: An ecological approach. *Psychology in the Schools*, 39, 459-475.
- Bolton, C., Gooding, P., Kapur, N., Barrowclough, C., & Tarrier, N. (2007). Developing psychological perspectives of suicidal behavior and risk in people with a diagnosis of schizophrenia: We know they kill themselves but to we understand why?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511-536.
- Bostik, K. E., & Everall, R. D. (2007). Healing from suicide: adolesc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5, 79-96.
- Chang, E. C. (1998). Cultural difference, perfectionism and suicidal risk in college population; Does social problem solving still matt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 237-254.
- Chang, E. C. (2002). Examining the link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ocial problem solving as a buff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581-595.
- Chang, E. C.,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29-137.
- Cheng, S. K. (2001). Life stress, problem solving,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nes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303-310.
- De Jong, M. L. (1992). Attachment, individuation, and risk of suicide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357-373.
- Dean, P. J., Range L. M. & Goggin W. C. (1996). The Escape theory of suicide in college students: Testing a model that includes perfectionism.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6, 181-187.
- Diserud, G., Roysamb, E., Braverman, M., Dalgard, O. S., & Ekeberg, O. (2003). Predicting repetition of suicide attempt: A prospective study of 50 suicide attempter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7, 1-15.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437-453.
- D’Zurilla, T. J., & Nezu, A. M.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SPSI). *Psychological Assessment*, 2, 156-163.
- D’Zurilla, T. J., Chang, E. C., Nottingham, E. J., & Faccini, L. (1998). Social Problem-Solving Deficits and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risk in college students and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Clinical*

- Psychology*, 54, 1091-1107.
- Flett, G. L., Davis, R. A., & Hewitt, P. L. (200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1, 119-138
- Frost, R. O. & Marten, P. A. (1990).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559-572.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M., & Rosenberg,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Hamilton, T. K., & Schweitzer R. D. (2000). The cost of being perfect: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4, 829-835.
- Hewitt, P. L., & Dyck, D. G. (1986). Perfectionism, stress, &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137-142.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s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ewitt, P. L., Newton, J., Flett, G. L., & Callander, L. (1997).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pati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95-101.
- Jeglic, E. L., Sharp, I. R., Chapman, J. E., Brown, G. K., & Beck, A. T. (2005). History of family suicide behaviors and negative problem solving in multiple suicide attempter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9, 135-146.
- Kawamural, K. Y., & Frost, R. O. (2004). Self-concealmen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 183-191.
- Klibert, J. J., Langhinrichsen-Rohlinh, J., & Saito, M. (2005). Adaptive and Maladaptive Aspects of Self-Oriented vers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 141-156
- Mil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 Leenaars, A. A. (1996). Suicide: A multidimensional malaise.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6, 221-236.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O'Connor, R. C. (2003). Suicidal behavior as a cry of pain: Test of a psychological model.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7, 297-308
- O'Connor, R. C. (2007). The relations between

- perfectionism and suicidality: a systematic review.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37, 698-714.
- OECD (2006), OECD Health Data 2006.
- Rice, K. G., & Lopez, F. G.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dult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 118-128.
- Rice, K. G., Lopez, F. G., & Vergara, D. (2005). Parental/social influences on perfectionism and adult attach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 580-605.
- Rice, K. G., & Mirzadeh, S. A. (2000). Perfectionism, attach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38-250.
- Shaffer, D., Pfeffer, C. R., Bernet, W., Arnold, V., Beitchman, J. Benson, S. et al. (2001). Practice parameter for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7 Supplement), 24S-51S.
- Sheehy, N., & O'Connor, R. C. (2002). Cognitive style and suicidal behavior: implications for therapeutic intervention, research lacunae and prioriti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30, 353-362.
- Vogel, D. L., & Wester, S. R. (2003).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 the mediating role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47-357.
- Williams, J. M. G. (1997). *Cry of pain: Understanding suicide and self-harm*. London: Penguin.
- 원 고 접 수 일 : 2008. 5.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8. 7. 18.  
게 재 결 정 일 : 2008. 7. 27.

##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Maladaptive Perfectionism,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Problem Solving and Attachment Styles

Sang-mi You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eung-yeon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o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for the group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Using the structural model of perceived stres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problem solving and attachment styles were respectively examined. This study was based on the data from 597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indicated that maladaptive perfectionism par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roblem solving occurred not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but als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cure/insecure attachment styles occur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suicidal idea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perceived stress, maladaptive perfectionism, social problem solving, attachment styles